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식음료조리계열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유형 분석 연구

Analysis of Culinary Arts Major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s in Overseas Employment Program

김찬우, 신승훈
영남이공대학교 식음료조리계열

Chan-Woo Kim(kimchanwoo@ync.ac.kr), Seoung-Hoon Shin(hoon151@ync.ac.kr)

요약

본 연구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한 식음료조리계열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여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구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관적 인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특징의 분석을 통해 총 4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1유형(N=6)은 “국내 취업연계 형(Link to Domestic Employment Type)”으로, 제2유형(N=8)은 “신규 산업체 발굴 필요 형(Finding New Enterprise needed Type)”으로, 제3유형(N=3)은 “전공 맞춤 어학 교육 요구 형(Major Customized Language Education Demand Type)”, 그리고 제4유형(N=2)은 “전공 분리 교육 요구 형”(Major Divided Education Demand Type)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해외취업이후 국내취업으로 전환 시 국내 업체와의 연계성 확립과 취업역량관련 추가 교육의 편성이 필요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외현지의 다양한 취업처 및 직무 개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의 반 구성에 있어 해외취업국가별의 구분에 추가하여 전공별 구분도 고려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 중심어 : | 해외취업 프로그램 | 조리전공 대학생 | 주관성연구 | Q방법론 |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subjective perceptions of culinary arts major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verseas employment program for providing vital information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The study adopted Q methodology as an analogizing tool and found four distinctive types. The first type is Link to Domestic Employment Type(Type 1, N=6), the second type is Finding New Enterprise needed Type(Type 2, N=8), the third one is Major Customized Language Education Demand Type(Type 3, N=3), and the last one is Major Divided Education Demand Type(Type 4, N=2). The results indicated that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bridge between overseas employment and domestic employment with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of domestic job recruiting process. It is also emphasized that informing extra available job placements for the students is vital. Lastly when the sub program were formed, it is necessary to divide students based on not only overseas employment destination but also their major.

■ keyword : | Overseas Employment | Culinary Arts Major Students | Subjective Perception | Q Methodology |

I. 서론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 7%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약 4%, 2010년 이후 약 3%대로 지속적인 저 성장과 일자리 또한 충분히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후 청년층의 취업 기회 악화와 청년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1].

2018년 1월에 발표된 통계청 및 OECD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1%로 OECD국가 평균 53.2% 보다 11.1%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나 2009년 청년실업률 8.0%에서 2017년 9.8%이라는 다소 부족한 상승과 성과를 감안할 때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이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는 해외취업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 중에 있으며,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리더 양성과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취업 알선, 해외취업 구직의 직무능력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3].

2013년에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취업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후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K-Move'명명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브랜드화 하였으며,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았다. 또한 해외 인턴십 사업을 해외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 및 구축, 재편성을 통해 해외취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4].

대학생들은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쌓기 위해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아가고 있으나 구인·구직간의 불일치와 취업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5]. 이에 대학생들의 취업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

며 노동시장 환경과 고용정책, 사회정책 등 거시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 이는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7].

이와 같은 실업문제를 국내에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취업을 통해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지만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및 인식부족, 두려움 등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과 외국인 노동이동 정책의 변화, 국가 간의 협약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8].

본 연구의 목적은 식음료조리계열의 해외취업에 성공한 조리전공 대학생에 대해 주관적 인식과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추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교육과정과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며, 본 연구방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최근 해외취업자의 기초현황분석과 학과에서 실시한 해외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취업역량, 이직 등 모든 경험 과정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나아가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문헌연구

1. 해외취업 프로그램 개념

해외취업은 2000년대 초 개인이 가진 국적을 벗어나 외국에서의 소득수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해외 인력진출 또는 인력수출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9][10]. 또한 해외취업은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고 소득수입을 목적으로 외국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발적인 노동이동 이라고 정의 하였다[3].

해외취업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개념은 취업 의사결정의 지원, 취업 효능감 증진, 구직 기술 향상 등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11-13], 지금까지의

해외취업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조직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등을 개발하기 위한 구조화된 교육 개입 또는 처치라고 할 수 있다 [14].

최근 국내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취업으로 인해 취업난 극복을 필요로 하는 정부부처, 대학 등에서는 국외의 넓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선진국의 높은 임금과 복지, 대우 등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2. 해외취업프로그램 선행연구 검토

해외취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해외취업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으며[10],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는 해외인력진출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분석하였다[11]. '청년층 해외 일자리 탐색 에 관한 연구'를 국내의 청년층 해외일자리 사업과 해외 청년취업 노동시장을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15], 최근 들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해외취업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해외취업의 필요성을 인적자원의 활용차원, 전문직의 자기개발 차원, 선진기술의 전수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된 논문이 발견 되었다[1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과거 노동시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및 이론 중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정부지원에 대한 실태, 활성화 방안, 정책의 효과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해외취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 글로벌리더 양성 등을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 제시되었으며, 해외취업 분석에 활용된 정보는 취업국가, 인원, 업종, 학력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져 있었고 자료에 대한 일관성도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서 시행중인 해외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특성을 분석 함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취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Q방법론

Q방법론은 심리학자인 Stephenson이 1935년에 창안한 통계기법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동연구를 위해 철학적, 심리적, 통계적, 심리측정의 분야를 적용하여 개발한 방법으로 인간의 주관성의 정량적 분석을 유도하는 특수한 통계기법이다[16]. 또한 Q 방법론은 이론연구와 가설설정으로 시작하는 가설 연역적 방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과는 달리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7]. 따라서 인간행동 및 인간심리분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상적인 연구방법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Q방법론은 개인들의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의 검증과 같은 확인적 연구에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밝혀진바 있다[18]. 본 연구에서의 Q방법론 선정이유는 가설설정과 변수 특성 및 변수관계 분석, 인간의 부분적인 특성변수 및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R방법론과는 다른 행위자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 구조에 따른 유형별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적합한 통계 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인이 생각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가치, 태도, 신념과 같은 개념의 주관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가능한 Q 방법론을 적용하여[19] 학생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을 찾아내는 것은 미래 연구에의 시사점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또한 인간심리와 인간행동 분야와 같은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개발단계에 있는 연구의 경우 이상적인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연구 방법으로 채택 하였다[20].

III. 연구문제 및 방법론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식음료조리계열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과 그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고 발견하고자 한다. 기존의 해외취업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조리전공 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위한 주관적인 인식과 그 구조의 발견을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주관적 인식 유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 유형들 간의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총 5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Q 표본과 P 표본의 선정, Q 분류, 코딩과 리쿠르팅, 결론 및 논의의 순으로 설계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5월1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조리전공계열 재학생중 학과 내 해외취업프로그램을 경험한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술문을 정리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3. Q 표본의 구성

Q방법에서의 표본은 Q-sorting을 실행하는 진술문의 집합으로서 Q모집단에서 표출되는 표본의 수와 표출방법이 중요하다. Q표본의 선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연구주제에 관한 가능한 모든 진술문을 확보한 다음 무작위로 진술문을 추출하는 비구조적 표집(Unstructured Sampling) 방법과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Q표본의 범주를 사전에 설정하는 구조적 표집(Structured Sampling)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19]. 본 연구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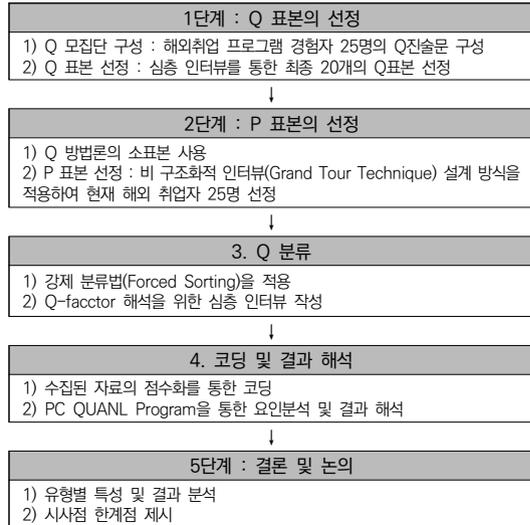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설계

모집단을 구성하여 총 2단계의 과정을 거쳐 Q표본을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조리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구조적 방법으로 모집단을 표집 하였다. 1차 인터뷰를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해외취업 연구논문, 학술서적,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 사업(K-Move) 자료, 학과 내 해외취업자 현황분석자료 등을 포함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최초 약 38개의 Q-모집단(concourse)을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모집단에서 Q표본을 추출하는 작업으로 의미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수정하여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외취업 담당 지도 교수자 2명의 전문가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불가능한 학생은 이메일과 SNS를 통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진술문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21][2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20개의 진술문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진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Q진술문

| 번호 | Q진술문(Q-Statements) |
|----|---------------------------|
| Q1 | 실무중심수업은 해외 취업 후 도움이 되었다. |
| Q2 | 이직이 어렵다. |
| Q3 | 전공 분야별로 분리 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 | |
|-----|-----------------------------------|
| Q4 |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기 어렵다. |
| Q5 | 귀국 후 국내취업이 어렵다 |
| Q6 | 전문적인 실무중심 강의 교수가 필요하다. |
| Q7 | 국내 취업 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 |
| Q8 | 취업 계약 기간이 짧다. |
| Q9 | 부처(butcher)수업이 필요하다. |
| Q10 | 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 Q11 | 취업 할 국적에 맞는 이력서, 자소서 쓰는 특강이 필요하다. |
| Q12 | 해외취업 회사는 국내와 연계된 기업이 없다. |
| Q13 | 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
| Q14 | 전공실무에 맞는 어학관련 수업이 중요하다. |
| Q15 | 경험 있는 선배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된다. |
| Q16 | 해외 위생법규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 |
| Q17 | 문화와 요리 트렌드 습득이 좋다 |
| Q18 | 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 |
| Q19 | 토익보다 회화수업이 중요하다 |
| Q20 | 여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3.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P표본 구성은 Q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 또는 피 실험자를 의미하며, Q방법론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인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R방법론과는 달리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의 비교 가능한 정도의 수면 충분하므로 P샘플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는 이유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오히려 요인분석의 한 요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적재되어 요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P표본은 학과 내 해외취업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32명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25명을 선정하였고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 한 후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4. Q-sorting

본 연구는 2019년 5월1일부터 17일 까지 자료 수집하였고, 위의 [그림 2]과 같이 Q분류의 절차로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3(가장 부동의), -2, -1, 0(중립, 모름, 관련 없음), +1, +2, +3(가장동의)로 총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점수별로 분류된 카드의 수는 0을 기준으로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에 따라 분류 하도록 하였다[표 2].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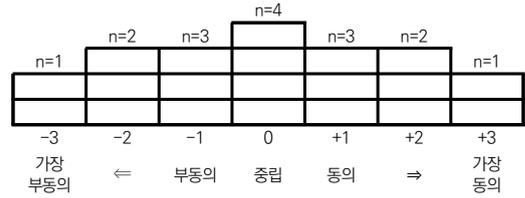


그림 2. 각 진술문의 긍정 및 부정의견 점수 분포방식

같은 분포 방식에 대한 통계적 논란은 많으나 분포의 양쪽 극단을 정상분포보다 2개 이상 극단 값에 분류하는 것은 관계의 분석이 용이함을 의미하며 분포방식이나 분포모양에 대한 율고 그림의 차이에 대한 의견은 Brown(1980), Kerliner(1986) 의 연구자를 통해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23][24].

표 2. 분포별 점수 및 진술문 수

| 분포 | -3 | -2 | -1 | 0 | 1 | 2 | 3 |
|----|----|----|----|---|---|---|---|
| 점수 | 1 | 2 | 3 | 4 | 5 | 6 | 7 |
| 진술 | 2 | 3 | 3 | 4 | 3 | 2 | 2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식음료조리계열 조리전공 졸업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측정하기 위해 Q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진술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인터뷰를 통해 Q모집단(concourse)의 요소들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진술문(Q-statement)을 작성하였다. 또한 P표본에 수집된 25명의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질문항과 변수 혹은 대상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이들 사이에 구조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25][26].

표 3. P 표본의 특성과 인자가중치

| 유형 | ID | 성별 | 연령 | 취업국적 | 학과(전공) | 인자 가중치 |
|--------------|----|----|----|------|---------|--------|
| TYPE I (N=9) | 5 | 남 | 24 | 일본 | 식음료조리계열 | 1.6424 |
| | 7 | 여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1.5664 |
| | 9 | 여 | 25 | 영국 | 식음료조리계열 | 1.2491 |

| | | | | | | |
|-------------------|----|---|----|------|---------|--------|
| | 13 | 남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2.8244 |
| | 16 | 여 | 23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7486 |
| | 18 | 남 | 25 | 영국 | 식음료조리계열 | 4.6447 |
| | 20 | 남 | 27 | 싱가포르 | 식음료조리계열 | 0.7130 |
| | 23 | 남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6833 |
| | 24 | 여 | 24 | 캐나다 | 식음료조리계열 | 0.6607 |
| TYPE II (N=6) | 1 | 여 | 24 | 싱가포르 | 식음료조리계열 | 0.6293 |
| | 4 | 남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1.2184 |
| | 6 | 여 | 23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7728 |
| | 10 | 여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4528 |
| | 12 | 여 | 24 | 일본 | 식음료조리계열 | 1.0284 |
| | 14 | 여 | 22 | 영국 | 식음료조리계열 | 1.5631 |
| TYPE III (N=8) | 2 | 남 | 24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2227 |
| | 3 | 여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1.1363 |
| | 8 | 여 | 23 | 영국 | 식음료조리계열 | 0.6099 |
| | 15 | 남 | 24 | 싱가포르 | 식음료조리계열 | 1.0078 |
| | 17 | 남 | 25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7130 |
| | 19 | 여 | 24 | 일본 | 식음료조리계열 | 0.3409 |
| | 21 | 남 | 24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1.9509 |
| | 22 | 남 | 24 | 캐나다 | 식음료조리계열 | 0.4037 |
| TYPE IV (N=2) | 11 | 남 | 24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3853 |
| | 25 | 남 | 26 | 호주 | 식음료조리계열 | 0.6642 |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관성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요인 분석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QUANL프로그램 통계결과, 전체변량의 약 45.5%를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요인에는 각각 9명, 6명, 8명, 2명으로 인원수에 대한 의미는 없다. 또한 인자 가중치가 1.0 이상인 응답자는 각각 5명, 3명, 3명, 0명이 속해있어 제1유형이 가장 큰(설명력이 높은) 인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보듯 각 유형의 변량크기를 나타내는 대표 아이겐값(eigen value)은 각각 5.4918, 3.1687, 2.7280 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분석방법으로 주인자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factor matrix)을 시행하고, 회전은 사각회전법(oblique 계 Within the countryrotation)을 시행하여 분석 하였다[27].

표 4. 유형별 아이겐 값(eigen value)과 변량

| | | | |
|----------|--------|--------|--------|
| 아이겐 값 | 5.4918 | 3.1687 | 2.7280 |
| 전체변량 백분율 | .2197 | .1267 | .1091 |
| 누적 빈도 | .2197 | .3464 | .4555 |

[표 5]는 전체 유형별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 주는데, 제 3유형과 제 4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443으로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제 1유형과 제 2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129,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0.244,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0.118,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154, 제 2유형과 제4유형은 -0.407,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0.443 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와 같이, 각 유형 간의 관계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4개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체 유형별 상관관계

| |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제5유형 |
|-------|-------|--------|-------|-------|------|
| 제 1유형 | 1.000 | - | - | - | - |
| 제 2유형 | 0.129 | 1.000 | - | - | - |
| 제 3유형 | 0.244 | 0.154 | 1.000 | - | - |
| 제 4유형 | 0.118 | -0.407 | 0.443 | 1.000 | - |

2. 각 유형별 분석

각 유형별 특성들을 종합 하여 분석하면 각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해당하는 진술문별 ±1.00이상의 표준점수를 보인 진술문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고 [표]로 제시한다. 이 중 높은 점수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네이밍(naming)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27]. 또한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문은 해당 유형에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가장 낮은 점수의 진술문은 반대로 해석 된다.

1.1 제 1유형(N=6) : 국내 취업 연계 형

(Link to Domestic Employment Type)

아래의 [표 6]을 보면, 제 1유형에 속한 응답자 9명은 위 [표 3]에서 분석결과 인자가중치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5명으로, 7번[국내 취업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Z-score=1.99).]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13번[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Z-score=-1.63)]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일치를 보였다. 제 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해외취업에서 쌓은 실무 경력으로 계약 종료 후 국내 산업체에 이직하려고 할 때 동종체인 업체가 아니거나 국내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근무했을 경우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을 “국내취업 연계 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제 1유형에서 표준점수 ±1.000이상을 보인 진술문

| Q 진술문 | | | 표준점수 |
|-------|----|-----------------------------------|-------|
| 긍정 | 7 | 국내 취업 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 | 1.99 |
| | 12 | 취업 할 국적에 맞는 이력서, 자소서 쓰는 특강이 필요하다. | 1.88 |
| | 5 | 귀국 후 국내취업이 어렵다 | 1.67 |
| 부정 | 8 | 취업 계약 기간이 짧다. | -1.20 |
| | 6 | 전문적인 실무중심강의 교수가 필요하다. | -1.61 |
| | 13 | 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 -1.63 |

표 7. 제 1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Type I Item Descriptions | | | | |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7 | 국내 취업 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 | 1.987 | -.191 | 2.178 |
| 5 | 귀국 후 국내취업이 어렵다 | 1.674 | -.247 | 1.921 |
| 12 | 해외취업 회사는 국내와 연계된 기업이 없다. | 1.879 | -.010 | 1.889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3 | 전공 분야별로 분리 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035 | 1.083 | -1.117 |
| 14 | 전공실무에 맞는 여학관련 수업이 중요하다. | -.424 | .945 | -1.368 |
| 13 | 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 -1.633 | .061 | -1.694 |

1.2 제 2유형(N=8) : 신규 산업체 발굴 필요 형 (Finding New Enterprise needed Type)

아래의 [표 9]을 보면, 제 2유형에 속한 6명은 위 [표 3]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3명으로, 18번[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Z-score=2.07)]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6번[전문적인 실무중심 강의 교수가 필요하다.(Z-score=-1.21)]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제 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조리전공에 관련된 해외산업체는 한 국가 당 2~3개로 매년 비슷한 곳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을 “신규 산업체 발굴 필요 형” 이라

고 볼 수 있다.

표 8. 제 2유형에서 표준점수 ±1.000이상을 보인 진술문

| Q 진술문 | | | 표준점수 |
|-------|----|-----------------------|-------|
| 긍정 | 18 | 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 | 2.07 |
| | 4 |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기 어렵다. | 2.03 |
| | 2 | 이직이 어렵다. | 1.97 |
| 부정 | 16 | 해외 위생법규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 | -1.02 |
| | 5 | 귀국 후 국내취업이 어렵다 | -1.11 |
| | 6 | 전문적인 실무중심강의 교수가 필요하다. | -1.21 |

표 9. 제 2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Type I Item Descriptions | | | | |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18 | 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 | 2.066 | -.947 | 3.013 |
| 4 |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기 어렵다. | 2.027 | -.349 | 2.376 |
| 2 | 이직이 어렵다. | 1.973 | -.058 | 2.031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7 | 국내 취업 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 | -.495 | .637 | -1.132 |
| 10 | 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162 | 1.080 | -1.242 |
| 5 | 귀국 후 국내취업이 어렵다 | -1.108 | .680 | -1.788 |

1.3 제 3유형(N=3) : 전공 맞춤 어학 교육 요구 형 (Major Customized Language Education Demand Type)

아래의 [표 10]을 보면, 제 3유형에 속한 8명은 위 [표 3]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3명으로, 10번[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Z-score=1.82).]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9번[부처(butcher) 수업이 필요하다.(Z-score=-1.66)]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제 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조리전공 특성상 해외취업산업체는 호텔, 레스토랑의 조리파트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어특강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전공과 관련되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학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을 “전공 맞춤 어학 교육 요

구 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제 3 형에서 표준점수 ±1.000이상을 보인 진술문

| Q 진술 문 | | 표준 점수 |
|--------|------------------------------|-------|
| 긍정 | 10 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1.82 |
| | 14 전공실무에 맞는 어학관련 수업이 중요하다. | 1.77 |
| | 19 토익보다 회화수업이 중요하다 | 1.54 |
| | 3 전공 분야별로 분리 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1.44 |
| 부정 | 16 해외 위생법규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 | -1.22 |
| | 8 취업 계약 기간이 짧다. | -1.32 |
| | 9 부처(butcher)수업이 필요하다. | -1.66 |

표 11. 제 3 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Type I Item Descriptions | | | | |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14 | 전공실무에 맞는 어학관련 수업이 중요하다. | 1.775 | .212 | 1.563 |
| 10 | 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1.819 | .419 | 1.400 |
| 19 | 토익보다 회화수업이 중요하다 | 1.535 | .404 | 1.132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9 | 부처(butcher)수업이 필요하다. | -1.657 | -.531 | -1.126 |
| 12 | 해외취업 회사는 국내와 연계된 기업이 없다. | -.472 | .774 | -1.246 |

1.4 제 4유형(N=2) : 전공 분리 교육 요구 형

(Major Divided Education Demand Type)

아래의 [표 12]을 보면, 제 4유형에 속한 2명은 위 [표 3]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0명으로, 3번[전공 분야별로 분리 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Z-score=1.49)]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치를 보이고 있고, 18번[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Z-score=-1.66)]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치를 보였다. 제 4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중 국적에 따라 유사전공 학과의 학생들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전공이 다를 경우 불필요한 정보나 학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전공별 분리 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을 “전공 분리 교육 요구 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제 4 형에서 표준점수 ±1.000이상을 보인 진술문

| Q 진술 문 | | | 표준 점수 |
|--------|----|-----------------------------|-------|
| 긍정 | 3 | 전공 분야별로 분리 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1.49 |
| | 13 | 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 1.49 |
| | 14 | 전공실무에 맞는 어학관련 수업이 중요하다. | 1.43 |
| | 10 | 영어특강 프로그램은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1.03 |
| 부정 | 15 | 경험 있는 선배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된다. | -1.49 |
| | 4 |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기 어렵다. | -1.66 |
| | 18 | 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 | -1.66 |

표 13. 제 4 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Type I Item Descriptions | | | | |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13 | 국적에 맞는 반을 개설하여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 1.494 | -.981 | 2.476 |
| 8 | 취업 계약 기간이 짧다. | -.168 | -1.023 | 1.023 |
| Item Greater Than All Other | | Z-Score | A, or N. Z | Diff. |
| 15 | 경험 있는 선배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된다. | -1.494 | .106 | -1.600 |
| 18 | 해외 취업처의 수가 한정적이다. | -1.662 | .295 | -1.957 |
| 4 | 원하는 부서에 취업하기 어렵다. | -1.662 | .881 | -2.543 |

3. 일치하는 항목별 분석

표 14. 일치하는 항목과 평균 표준점수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 Item Description | | Average Z-Score |
|------------------|-----------------------------------|-----------------|
| 20 | 여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1.62 |
| 11 | 취업 할 국적에 맞는 이력서, 자소서 쓰는 특강이 필요하다. | -.54 |
| 16 | 해외 위생법규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 | -.77 |

(* CRITERION = ±1.000)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유형 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Q질문은 총 1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응답자들은 20번[여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Z-score=1.62)]의 진술문에 전체적인 긍정적 일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의견 동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해외취업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외 취업을 한 식음료조리계열 조리전공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다. 주관적 인식유형의 다각적 분석을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문제로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와 해외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조리전공 졸업생의 주관적 인식유형들 간의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해외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집단 인터뷰 및 중복 문항의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최종 20개의 Q진술문을 선정하고, 학과 내 해외취업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해외취업에 성공한 학생 25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관적 인식 유형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이 각각 그 특이성에 따라 명명하였다. 제1유형(N=6): 국내 취업연계형(Link to Domestic Employment Type), 제2유형(N=8): 신규 산업체 발굴 필요형(Finding New Enterprise needed Type), 제3유형(N=3): 전공 맞춤 어학 교육 요구형(Major Customized Language Education Demand Type), 제4유형(N=2): 전공 분리 교육 요구형(Major Divided Education Demand Type).

먼저 제1유형은 “국내취업연계형”으로 해외취업에서 국내로 돌아와 이직하려고 할 때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재취업 시 국내 사정에 맞춘 취업관련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해외취업 경력의 국내 인정, 국내 취업 시의 취업역량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국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내 취업 연계 가능성 제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해외취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2유형은 “신규 산업체 발굴 필요형”으로 명명되었다. 학생들은 해외 현지의 제한적 취업처의 수, 원하는 직종으로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과 제한적인 이직의 기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주관적 인식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처와 직종의 발굴과 제시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3유형은 “전공맞춤 어학교육 요구형”으로 어학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회화스킬에 대한 필요성 인지, 그리고 전공별 어학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이 나타났다. 인식유형의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을 위한 어학교육에 있어 실생활을 위주로 하는 어학습득과 실제 직무와 연관된 어학 학습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 4유형으로 제시된 “전공분리 교육요구형”은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중 취업국가에 따른 구분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공 분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목의 편성을 통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인원수에 대한 의미는 없으나 타 유형에 비해 표본의 수가 낮은 것으로 보았을 때 결과의 객관화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가지 유형분석의 결과를 통해 먼저 학생들은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취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한 국내의 미래 지향적 비전의 제시와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업체와 직무로 구성된 취업처의 발굴과 안내는 해외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내 귀국시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의 제공이나 관리를 초기 해외취업프로그램의 구성의 일부분으로 두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해외취업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취업을 단순한 경험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 진로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어학 및 관련 정보의 습득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전공의 구분을 통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상기에 제시된 내용이 추가된 해외취업교육프로그램의 편성 및 진행 후 학생들의 주관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완성된 프로그램의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송창용, 성양경,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2] 통계청,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2018.

[3] 민병휘,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취업자 특성분석 -K-Move 사업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 박성재, *K-Move사업 고용영양평가 현장 점검 보고서*, 고용노동부, 2015.

[5] 김주섭,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장벽 및 취업준비 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2호, pp.141-166, 2017.

[6] 김주섭,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제16권, 제4호, pp.31-59, 2013.

[7] 오성욱, "대졸이후 첫 주된 일자리 취업자의 구직경로 별 구직준비행동이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제7권, 제2호, pp.79-101, 2017.

[8] 이승구, 이계경, "한국 대학생 직업목표점사의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제12권, 제4호, pp.1131-1150, 2011.

[9] 박양근, 남상균, *해외취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 1999.

[10] 최병기,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개정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7.

[12] 박가열노경란, *청소년 직업체제 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6.

[13] 장서영, 안선영, 최동선, *성취 프로그램 개정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07.

[14] 권경득, 강일규, 임정민,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해외취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제4호, p.361-392, 2011.

[15] 조은상, 이영대, 우형제, 오성은, *전문대학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2010.

[16] S. Watts and P. Stenner, "Doing Q Methodology: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dhology*, Vol.2, pp.67-91, 2005.

[17] B. Mckeown and D. Thomas, *Q-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1988.

[18] S. Watts and P. Stenner, "Doing Q Methodology: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dhology*, Vol.2, pp.67-91, 2005.

[19] 김범중, "Q방법론의 이해와 소비자 연구에의 적용," *한국마케팅저널*, 제1권, 제3호, pp.120-140, 1999.

[20] D. D. Kline, R. E. Kleine, and C. T. Allen, "How is a Possession "me" or "notme"? Characterizing Types and a Antecedent of Material Possession Attachment," *Journal of Consumer Reserch*, Vol.22, pp.327-343, 1995.

[21] 이해정, 김인규, 이정우, "IT 프로젝트 팀원의 리더십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제30호, pp.65-88, 2015.

[22] 이해정, 민애홍, "디지털 게임 플레이어의 주관성 연구 -게임 분류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pp.275-287, 2019.

[23] S. R. Brown, "Q Methodology and Communic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ElectronicJournal of Communication*, Vol.1(September), 1990.

[24] F. N.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Y: CBS College Publishing, 1986.

[25] 김찬우,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이용고객에 대한 주관성 연구: Q방법론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pp.635-646, 2018.

[26] 김찬우, 김동수, "NCS기반 음식·조리분야 교육과정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192-202, 2017.

[27] 김찬우, 신승훈 "외식업체 빅 블러(Big Blur)현상과 키오스크(Kiosk)도입에 따른 이용고객의 주관성 연

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5호, pp.268-279, 2019.

저 자 소 개

김 찬 우(Chan-Woo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경기대학교(관광학 석사)
- 2018년 2월 : 가톨릭관동대학교(외식경영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관광외식학부 식음료조리계열 조교수

〈관심분야〉 : 관광, 외식경영

신 승 훈(Seoung-Hoon Shin)

정회원



- 2004년 2월 : Griffith University (경영학 학사)
- 2005년 7월 : The University of Queensland(경영학 석사)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경영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관광외식학부 식음료조리계열 조교수

〈관심분야〉 : Q 방법론, 문제중심학습, 핵심인재관리, 브랜드동일시, 직무불안정성,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공정성, 기대이론 등